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참전용사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싶다 전우야' 상봉행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참전용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살아있었구나 전우야" 50년 만에 얼싸안은 참전용사들

'보고싶다 전우야' 프로젝트 상봉 현장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V나라사랑'은 2년여 전인 2020년 5월부터 기획한 '보고싶다 전우야'를 통해 현재까지 6·25전쟁 참전용사 11명과 월남전 참전용사 24명이 전우를 찾는 사연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참전유공자들의 관심 속에 계속된 '보고싶다 전우야'를 통해 전우 찾기에 성공했고, 지난달 14일 드디어 12명의 '뜨거운 만남'이 성사됐다.

 # 감격의 웃음 활짝, 그리고 눈물

첫 번째 상봉자는 김봉상, 정대원 월남전 참전용사. 김봉상 참전용사가 단상에 올랐고, 전우를 찾는 사연이 모니터로 방영되던 중 정대원 전우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이름이 두 번 불려지고 극적으로 만난 이들은 51년 만의 '생사 확인'에 크게 감격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안은 이들은 50년의 세월을 넘어 청춘으로 뛰어들었던 전투 현장을 떠올리고 있었다. 보병으로 16개월이나 함께 누볐던 현장의 전우가 지금 여기 내 품 안에 있는 것이다. 환한 얼굴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노병들은 이내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출 수 없었다.

이명종, 이승국 참전용사는 만나자마자 얼굴을 부비며 손을 잡는다. 50년이 지나서도 서로를 '해병'이라 부르는 두 사람은 긴 세월을 훌쩍 건너 옛 시절로 되돌아가 있었다.

"동생처럼 챙기고 보듬어 주었는데, 이렇게 정말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제주도 산다는 얘기를 듣고 출장이나 여행길에는 항상 수소문했는데, 이제야 만나다니…."

김성업 참전용사는 내무반에서 깡통을 두드리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전우를 찾았다. 달려나온 권오천 참전용사는 밝은 표정으로 전우를 힘껏 안았다.

사회자의 즉석 노래 요청에 잠시 망설이던 두 참전용사는 사전에 입을 맞추고 나온 듯 완벽한 하모니로 노래를 했다.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 …" 상봉장 전체로 박수 소리와 기쁨의 흥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정창완, 조수현 참전용사와, 이종근, 박세곤 참전용사도 '역사적인, 그리고 꿈만 같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백충호 참전용사는 사정상 김창호 참전용사와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며 아쉬움을 달랬다.

 # 이야기 꽃, 그리고 다시 만날 약속

상봉이 끝난 후 자리를 정리하고 참석자들은 배우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시간.

정창완, 조수현 참전용사는 서로가 각각 강릉과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하고는 "거리가 좀 멀긴 하다"며 "그래도 자주 연락하자"며 굳게 손을 잡았다. 강원도 화천 오음리에서 파병을 앞두고 훈련을 받았던 얘기로 꽃을 피운 두 사람은 '착하고 말이 통했던 친구' '형제보다 더 친했던 관계'라며 대화하는 내내 서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성업 참전용사는 지각으로 행사도중 극적으로 도착한 권오천 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두리번거리자 손을 잡아 단상으로 안내하며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식탁으로 이동해 서로가 가져온 사진을 보며 20대 '청춘'이었던 당시를 회상하며 시간가는 줄 몰랐다.

권오천 참전용사의 아내는 오랜 전우에게 "남편은 전쟁의 참혹한 기억으로 최근까지도 잠을 잘못 이룰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그걸 잊기 위해 최대한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이라며 소개했다. 부부는 김성업 참전용사 부부와 오랜 이웃인 듯 더욱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으로 서로의 전화번호를 나누며 "같은 수도권에 사는 만큼 자주 보면서 얘기도 함께 나누자"고 굳게 약속했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고싶다 전우야' 상봉행사에서 1966년 월남전 파병 당시 주월 십자성 사령부 53탄약중대 수송부로 참전한 김성업씨가 당시 전우인 백마부대 보병 9사단 권오천씨를 만나 당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위). 상봉행사에 참석한 월남전 참전용사 김봉상씨와 정대원씨가 눈물을 훔치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아래).

 # 함께 '공감하며 축하하는' 행사장

옛 군가가 조용히 흐르는 행사장은 참석자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가벼운 설렘이 느껴졌다. 이날의 주인공들을 축하하기 위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관련 보훈단체 회장 등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봉행사에 참석하신 참전용사분들은 숱한 생사의 고비를 마주해야 했던 전쟁터에서 그 누구보다 끈끈한 전우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참전용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고 싶은 전우를 만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함께 참석한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과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도 함께 월남전에서 전우로 참전했었다며 '우리도 상봉 주체'라고 소개해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의 부친도 월남전 참전 전몰용사이고, 사회를 본 방송인 박경림씨의 부친도 참전용사이다.

3시간여의 짧은 시간이 가고 헤어지는 시간, 몇몇 '전우'들은 떠나는 버스를 향해 끝까지 손을 흔들며 이날의 극적인 만남과 다시 이어질 만남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보고싶다 전우야'에 참여하려면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 전화 044-202-5092나 전자우편 lmj1048@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